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싫증 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 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오래 알아 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고,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사금파리: 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

(나) 내가 라면을 처음 먹어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다. 초겨울 찬바람이 손을 시리게 만드는 저녁 무렵, 나는 생애 최초로 라면을 먹었다. 그 맛은 기존의 질서에서 살짝 일탈한 위반의 맛이었다. 동시에 인스턴트했고 중독의 예감을 안겨 주는 맛이었다.

그로부터 삼 년 뒤에 나는 서울의 변두리 동네로 전학을 와서 어느 독서실에 출입하게 되었다. 독서실에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환경에 걸맞게 더욱 도시적이고 현대적이었다. 빈 분유 깡통에 물을 넣고 라면과 수프를 함께 넣은 다음 뚜껑을 덮는다. 비닐 뚜껑에는 미리 뚫어 놓은 구멍이 두 개 있는데 그 구멍에 전극이 연결된 젓가락을 꽂는다. 그러면 곧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깡통 안의 물이 끓어오른다. 물이 끓는 것과 동시에 젓가락을 빼고 자기 자리로 깡통을 들고 와서 몇 분 기다렸다가 먹으면 된다. 그 라면은 시골에서 먹던 것보다 짰고 더욱 인스턴트했고 냄새가 강했다.

그로부터 대략 이 년 뒤, 서울 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 밥을 꽉 눌러 채운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분식집에 모였다. 그러면 주인은 미리 껍질을 벗겨 놓은 라면을, 역시 미리 수프를 풀어 끓여 놓은 냄비 속에 빠뜨렸다. 그러고는 시큼하고 커다란 단무지 세 쪽 아니면 네 쪽을 접시에 담아 냄비와 함께 가져다주었다. 식탁에 있는 고춧가루를 살짝 풀어 라면과 함께 밥을 말아 먹으면 도서관에서의 한밤까지도 든든했다. 그때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지, 라면을 먹으려고 도서관에 남아 있는지 잘 모를 지경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라면의 맛을 잃어버렸다. 라면의 종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고 재료 역시 좋아졌지만 내가 찾는 그 맛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동안 나는 초겨울 빈 들에 구하기도 힘든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들고 나가 짚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 보기도 했다. 또 어렵사리 분유 깡통을 구해 젓가락을 넣다가 합선 사고를 내기도 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를 찾아 시장을 헤맨 적도 있다. 여러 사람의 자문을 얻어 이것저것 실험도 해 보았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는 성냥불만 닿아도 파르르 반응하도록 얇을수록 좋다. 수프는 미리 찬물에 풀고 그 물을 최대한 오래 끓인 뒤 면을 넣는데 뚜껑은 덮지 말고 면을 섞거나 뒤집지 않는다. 날씨는 추울수록 좋고 끓는 부분과 차가운 대기에 접촉하는 면이 공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겨울에 마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와 같은 맛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전에 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나는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을 먹고 싶어 하는 거라고.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헛되이, 저 멀리에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시절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다) 귀퉁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다. 동그라미는 너무 슬퍼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여행하며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다.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지요. 잃어버린 내 조각 어디 있나요."

때로는 눈에 묻히고 때로는 비를 맞고 햇볕에 그을리며 이리저리 헤맸다.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 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길가에 핀 꽃 냄새도 맡았다. 어떤 때는 딱정벌레와 함께 구르기도 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다.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어 이전보다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다. 그런데 떼굴떼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다. 꽃 냄새도 맡을 수 없었고, 휙휙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다.

"내 잃어버린 힉, 조각을 힉, 찾았어요! 힉!"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구르다 보니 숨이 차서 부를 수가 없었다.

한동안 가다가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려 가며 노래했다.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라) **[앞부분의 줄거리]** 나(정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하고,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긴데."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안 다니면?"

아버지는 애써 화를 참으며 물었다.

"앞으로는 절대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 주세요."

"대관령엔 왜? 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아뇨,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저 자신 있어요, 아버지."

"이봐라, 정수야."

"예."

"니 올해 나이가 몇이나?"

"열일곱 살요."

"그러면 그건 스무 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라도."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한 해라도 빨리요."

"그런 거 빨리 해서 뭘 할 건데?"

"돈 벌려구요. 공부도 취미가 없고 하니까."

"글쎄, 그런 건 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가. 내일 개학이고 하니까."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구요. 이번엔 아주 멀리요."

(중략)

"어쩌면 이게 니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 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 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니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 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을 놓는다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예, 명님(명념)* 할게요."

"니두 이다음 자식 키워 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니가 니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게야.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

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으로 큰돈을 손에 쥐게 된다.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는 등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나는 다음 해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엔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에 이른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왠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었다.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스무 살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된다 해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 오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니 이렇게 제자리로 올 줄.”

[뒷부분의 줄거리] 나는 그동안 어른놀이를 하느라 길렀던 머리를 깎고, 두 살 아래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간다.

* 고랭지: 낮은 위도에 있고 표고가 600미터 이상으로 높고 한랭한 곳.
* 명념(銘念): 명심.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 둠.

(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막상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따라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 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써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대의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 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

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이역*에서 싸웠지만,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그의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잔인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별없는 저술가들은 이러한 성공적인 행동을 찬양하면서도 그 성공의 주된 이유를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한니발: 카르타고의 장군.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고 이탈리아에 침입하여 로마군을 격파하였다.
*이역(異域): 다른 나라의 땅. 또는 고향이 아닌 딴 곳.

(바)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 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대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옻*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못하게 된 거였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집터서리: 집 바깥 둘레의 근방.
*옻: 옻나무에서 나는 진액.
*옴: 옴진드기가 기생하여 일으키는 전염 피부병.

(사) 맹자는 사람에게는 단지 도덕적인 마음의 단서가 있을 뿐, 이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선한 마음의 싹이 말라 죽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까닭에 맹자는 사람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기르는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수련을 강조하였다.

맹자는 성선설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을 전개하였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도덕적 마음이 있다고 전제하고, 통치자가 이러한 마음을 정치로 확장할 때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무력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한다.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종한다. 따라서 맹자는 형벌로 강제하는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는 왕도 정치를 이상적 정치라 하였다. 맹자는 "백성이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라고 하며, 통치자가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통치자를 바꿀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역성혁명: 군주가 군주답지 못할 때 하늘의 뜻에 따라 혁명으로 왕조를 바꿀 수 있다는 뜻.

(아) 근대 시민 혁명을 전후로 등장한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고 보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성 결핍 현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성 결핍 현상은 개인을 사회와 독립된 별개의 존재이자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보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개인을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은 끊임없이 개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한다.

(자) 중세 시대 어느 작은 마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은 양을 기르는 일이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워서 양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양들은 마을 공유지인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마을 주민 누구도 이 초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 초원은 마을 주민의 공동 소유지로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서 자신의 양이 풀을 먹게 할 수 있었다. 초원의 풀이 풍부할 때 이 공동 소유 제도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공유지의 풀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자 양의 수를 경쟁적으로 늘렸다. 초원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나 양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초원에 풀이 자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초원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마을 공유지에 더 이상 풀이 없기 때문에 양을 기를 수 없게 되었고, 한때 융성하던 이 마을의 양털 산업은 쇠퇴하였다. 마을은 결국 생활 기반을 상실하였다.

(차) 권리는 의무를 전제로 하고, 의무는 권리를 전제로 하므로,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모두가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책임이나 의무를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이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만을 강요한다면 개인이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것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경시하지는 않으며, 공동선과 공익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 등 사익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고민하는 '나'가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에서 '나'가 고민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 도달한 새로운 인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부자 간 대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논지를 비판하고,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군주의 통치 방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를 토대로 제시문 (자)에 언급된 마을의 생활 기반 상실의 원인을 설명하고, 제시문 (자)의 마을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차)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평가목표와 출제의도

평가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3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2 인문사회계열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고민'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독서, 문학,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고민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제시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고민하는 내용과 각기 다른 상황과 과정을 통해 도달한 새로운 인식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비교, 분석,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새로운 인식이 도덕 법칙, 통치 윤리와 연결되는 측면을 텍스트의 논지를 통합하여 도출해 내는 유추적 사고력, 4)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 그리고 5)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고민'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제시문이 '나'의 고민의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서 주인공이 '고민하는 내용' 및 이를 통해 얻은 '새로운 인식'을 찾아 서술하고, 이를 결론에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타난 통치 윤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제시문에 비추어 해석, 비판하는 능력, 2) 통치 윤리의 윤리적인 측면을 도출해 내는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및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등장하는 군주의 통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여 주어진 두 제시문을 읽고 통치 윤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의 군주의 통치 방식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 내야 한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된 상황과 그 기반이 된 자유주의적 관점을 이해하고 그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일관되고 완결된 논리로 쓸 수 있는 능력, 2)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상호 보완적 시각을 이해하고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 주어진 제시문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 이를 토대로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정여울, 「우리에겐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 신유식 외, 『국어』, 미래엔, 2020, 91-92쪽.
- 제시문 (나): 성석제, 「소년 시절의 맛」, 정민 외, 『국어』, 해냄에듀, 2019, 102-104쪽.
- 제시문 (다): 셸 실버스타인, 「잃어버린 조각」(장영희, 「특별한 보통의 해」에서 재인용),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2019, 95쪽.
- 제시문 (라): 이순원, 「19세」, 정호웅 외, 『문학』, 천재교육, 2019, 21-29쪽.
- 제시문 (마):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019, 174-177쪽.
- 제시문 (바): 이문구, 「성난 풀잎」,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21, 20-21쪽.
- 제시문 (사): 「도덕적 마음과 제도적 규범」,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씨마스, 2021, 45-47쪽.
  「맹자의 왕도 정치」, 조석영 외,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생활과 윤리)』, 한국교육방송공사, 2022, 90쪽.
- 제시문 (아):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 이진석 외, 『통합사회』, 지학사, 2019, 181쪽.
  이도영 외,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독서·문학·화법과작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2, 191쪽.
- 제시문 (자): 「공유지의 비극」(맨큐, 「맨큐의 경제학」에서 재인용),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20, 140쪽.
- 제시문 (차):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 구정화 외, 『통합사회』, 천재교육, 2020, 188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미래엔, 2020) 교과서에 실린 정여울의 「우리에겐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섣불리 포기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고민하고, 자신의 비관적 태도에 대해 자기반성적 인식을 보여주는 내용을 서술한 글이다. 글쓴이는 포기하는 습관이 내면화된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 깨우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에듀, 2019) 교과서에 실린 성석제의 「소년 시절의 맛」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 화자는 과거 어린 시절에 먹던 라면의 맛을 다시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라면을 끓여보며 시도하지만, 끝내 그 맛을 찾지 못하며 고민한다. 그 결과 내가 되찾고자 한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임을 인식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독서』(천재교육, 2021) 교과서에 실린 셸 실버스타인, 「잃어버린 조각」(장영희, 「특별한 보통의 해」에서 재인용)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의 나는 온전치 못한 자신에 대해 슬픔을 느껴 결핍을 채웠지만, 여전히 주변의 존재와 교감하기 힘든 자신에 대해 고민한다. 그래서 찾았던 조각을 내려놓고 존재의 불완전성이 행복의 조건임을 인식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9)에 실린 이순원의 「19세」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의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학교 대신 농사 짓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후 그러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한다. 결국 나는 제 나이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인식을 하며 학교로 돌아간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천재교육, 2019)에 실린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군주의 통치 방식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사랑보다 두려움을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다. 한니발의 사례를 들어 그러한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21) 교과서에 실린 이문구의 수필 「성난 풀잎」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잡풀을 제거하다가 풀독에 걸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름 없는 풀도 뽑히고 베어질 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하찮은 풀도 존재의 의미가 있고 억압과 폭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씨마스, 2021) 교과서에 실린 「도덕적 마음과 제도적 규범」과 고등학교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생활과 윤리)』(한국교육방송공사, 2022)에 실린 「맹자의 왕도 정치」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앞의 제시문은 존심양성의 수련을 강조하는 맹자의 성선설에 기초한 왕도정치 사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형벌을 강조하는 패도정치는 역성혁명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사람은 무력에 의한 통치에는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지학사, 2019)에 실린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고등학교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독서·문학·화법과작문)』(한국교육방송공사, 2022)에 실린 지문의 일부이다. 첫 번째 제시문은 자유주의 사상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서, 자유주의 정의관에 따르면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추구는 전체 사회의 부를 증가시켜 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서 개인의 행태가 공공성 결핍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2020)에 실린 「공유지의 비극」을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중략표시는 생략하였다. 해당 부분의 원전은 맨큐가 저술한 『맨큐의 경제학』이다.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공동 소유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개인들의 무분별한 자기 이익 극대화 행태는 종국적으로 공유지의 황폐화를 가져온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천재교육, 2020)에 실린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출제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중략표시는 생략하였다. 이 제시문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상호 보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조화되어야 공익과 사익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고민하는 '나'가 나타난다. 제시문 (가)~(라)에서 '나'가 고민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 도달한 새로운 인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고민을 통해 새로운 인식에 이르는 나가 나타난다. (가)의 나는 실패가 두려워 핑계를 대며 섣불리 꿈을 포기해 온 삶에 대해 고민한다. 이를 통해 포기하는 습관이 내면화됐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음을 자각한다. (나)의 나는 과거의 라면 맛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끓여봤지만 그때 그 맛을 느끼지 못해 고민한다. 그 결과 내가 되찾고자 한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임을 인식한다. (다)의 나는 온전치 못한 자신에 대해 슬픔을 느껴 결핍을 채웠지만, 여전히 주변의 존재와 교감하기 힘든 자신에 대해 고민한다. 그래서 찾았던 조각을 내려놓고 존재의 불완전성이 행복의 조건임을 인식한다. (라)의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한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한다. 결국 제 나이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인식에 이르러 학교로 돌아간다. 따라서 나는 포기에 대한 자책, 잃어버린 맛, 완전성과 행복의 관계, 선택에 대한 후회로 고민하면서, 자기반성, 추억의 소중함, 결핍의 인정, 나이에 걸맞은 성장이 의미 있다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부자 간 대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논지를 비판하고,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군주의 통치 방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의 아버지는 아들의 반항을 참고 경청함으로써 사랑과 믿음으로 아들의 미래에 대해 조언해 주는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마)의 군주의 통치 방식은 인간을 불신하기에 사랑보다 두려움을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다. 따라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아들의 동의를 이끈 아버지의 태도와 대비하면,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 수 없는 군주의 통치 방식은 비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바)의 요지는 하찮은 풀도 존재의 의미가 있고 계속되는 폭압에 고통을 느끼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에 따르면 군주가 선한 의지를 쌓지 않고 강압적으로 통치할 때 백성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군주의 지위까지 박탈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군주가 부하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통치 방식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고, 나아가 군주가 더 잔인하게 통치한다면 결국 체제가 전복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562자)

[문제 3] 제시문 (아)를 토대로 제시문 (자)에 언급된 마을의 생활 기반 상실의 원인을 설명하고, 제시문 (자)의 마을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차)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아)에 따르면 마을의 생활 기반이 무너진 것은 경제적 효용성 극대화가 초래한 마을 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 때문이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는 사회 전체의 부로 이어진다. 그러나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고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양 숫자를 늘렸고, 결국 양이 너무 많아져 한정된 자원인 초원이 황폐해졌다. 따라서 마을의 쇠퇴를 막기 위한 주민의 자세를 (차)에서 찾자면, 마을 주민들에게는 양을 키우되 공유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컨대 권리와 의무, 개인의 사익과 공동체의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명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350자)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나'가 '고민하는 내용'과 그 결과 도달한 '새로운 인식'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32점)

① **고민 내용:** 나는 실패가 두려워 핑계를 대며 섣불리 꿈을 포기해 온 삶에 대해 고민함 (4점)
새로운 인식: 포기하는 습관이 내면화됐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음을 자각함 (4점)

② **고민 내용:** 나는 '과거의 라면 맛을 잃어버리고, 이를 되찾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끓여봤지만 그때 그 맛을 느끼지 못해 고민함 (4점)
새로운 인식: 내가 되찾고자 한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임을 인식함 (4점)

③ **고민 내용:** 나는 '온전치 못한 자신에 대해 슬픔을 느껴 결핍을 채웠지만, 여전히 주변의 존재와 교감하기 힘든 자신에 대해 고민함 (4점)
새로운 인식: 찾았던 조각을 내려놓고 존재의 불완전성이 행복의 조건임을 인식함 (4점)

④ **고민 내용:**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한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함 (4점)
새로운 인식: 제 나이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여 학교로 돌아감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나'가 '고민하는 내용'과 그 결과 '나'가 도달한 '새로운 인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 / 본론 / 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5점)

[예시]

서론: 제시문 (가)~(라)에는 고민을 통해 새로운 인식에 이르는 나가 나타난다.
결론: 따라서 나는 포기에 대한 자책, 잃어버린 맛, 완전성과 행복의 관계, 선택에 대한 후회로 고민하면서, 자기반성, 추억의 소중함, 결핍의 인정, 나이에 걸맞은 성장이 의미 있다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고민 내용과 새로운 인식을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라)의 부자 간의 대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논지를 비판했는지를 평가한다. (20점): 5-20점 부여

① 제시문 (라)에서 아버지의 태도가 아들의 반항을 참고 경청함으로써 사랑과 믿음으로 아들의 미래에 대해 조언해준다는 점을 기술한다

② (라)의 아버지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아들의 동의를 이끈 것과 대비하면, (마)의 군주는 폭력적 강압적 태도를 취하기에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점을 비판한다

- 제시문 (라)의 아버지의 태도가 반항을 참고 경청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조언을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경우: 5~10점(최대 10점 만점 부여)
- 제시문 (라)의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기술하고 (마)의 군주의 통치가 인간에 대한 불신, 두려움을 동원하기에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어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11~20점 부여(최대 20점 만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2)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군주의 통치 방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0점): 5~20점 부여

① 제시문 (바)에서 하찮은 풀도 존재의 의미가 있고 계속되는 폭압에 고통을 느끼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한다.

② 제시문 (사)의 논지는 군주가 선한 의지를 쌓지 않고 강압적으로 통치할 때 백성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결국 군주의 지위까지 박탈시킬 수 있는 것을 기술한다.

③ 제시문 (마)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군주의 통치로 인해 피통치자가 고통을 느껴 저항을 불러오고, 결국 체제가 전복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한다.

- 제시문 (바)의 하찮은 풀도 존재의 의미가 있기에 폭압에 고통을 느끼고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을 경우: 최대 7점 부여
- 제시문 (사)의 군주가 강압적으로 통치하면, 백성은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군주의 지위까지 박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을 경우: 최대 7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의 군주 통치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피통치자의 고통과 저항. 체제전복을 구분하여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라)를 근거로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비판했는지 평가(20): 5-20점	제시문 (라)의 아버지의 태도를 명료하게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5~10점
		(라)의 아버지의 태도를 기술하고 (마)의 군주의 강압적 통치가 강압적이고 억압적이어서 동의를 이끌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한 경우	11~20점
	②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의 군주의 통치 방식이 초래할 문제를 서술했는가를 평가(20): 5~20 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파악한 경우	5~7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경우	8~14점
		두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마)의 군주의 통치가 피통치자의 고통, 저항과 체제 전복까지도 초래한다는 점을 제시했을 경우	15~2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를 토대로 제시문 (자)에 언급된 마을의 생활 기반 상실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2점)

① 경제적 효용성 극대화가 마을 주민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초래한다는 제시문 (아)의 논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 (6점)

②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기초한 합리적 이익 추구 행태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양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이는 결국 마을의 공동재산인 초원의 황폐화로 이르게 된다는 원인을 명확하게 기술한 경우 (6점)

2) 제시문 (자)의 마을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차)에서 찾아 명확하게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8점)

① 마을 주민들은 각자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자신의 양을 키우는 동시에 마을의 공동소유인 초원의 풀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주민 간 공동체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명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서술된 경우(6점)

②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적 권리와 공동체 의무를 조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요약 정리된 경우(2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를 토대로 제시문 (자)에 언급된 마을의 생활 기반 상실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12점)	경제적 효용성 극대화가 마을 주민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초래한다는 (아)의 논지 제시	3~6점
		합리적 이익 추구 행태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양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이는 결국 초원의 황폐화로 이르게 됨	9~12점
	② (자)의 마을이 쇠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차)에서 찾아 명확하게 서술(8점)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사익과 공동체주의의 공익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함을 기술	3~6점
		사적 권리와 공동체 의무를 조화시켜야 된다는 내용 요약 정리	7~8점